



우간다

빈곤 타개를 위한 계란 프로젝트

우간다 양계협회는 계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계란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내수 시장 창출과 가난한 시골 농부의 수입 증가를 위함이다.

이 사업은 모든 아이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계란 3개를 먹자고 제안한다.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 730만 명을 기준으로 250개 학교에서 매일 1년이면 61,284,608판의 계란이 필요하고,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려면 8,457,300마리의 산란용 닭이 있어야 한다. 이는 양계농가와 사료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정부관계자는 “이 프로젝트는 가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부에서 심사숙고해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새로운 계란 코팅 기술 발표

태국 Kasetsart대학의 Panuwat Suppakul 교수가 7년여 간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새로운 계란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첫 번째 섬유소를 기반으로 한 이 기술은 유통기한을 120일까지 늘려준다. 또한 이 방법은 세균 오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영양분 손실을 50%가량 줄여준다.

“신기술은 물로부터 안전해 갓 세척과 건조 공정을 거친 계란에도 바로 적용 가능하고, 항균력도 가지고 있어서 이 공정을 거친 계란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Panuwat 교수는 밝혔다. 이 방법은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벨기에

방사로 키우는 닭에 다이옥신 더 많아

뒤뜰이나 정원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이 닭장에서 키운 닭의

달걀보다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로 키운 닭의 달걀을 먹는 것은 건강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Scientific Institute for National Health에 의해 보도되었다.

Antwerp 대학의 연구원 Ghent와 Liege는 Centre of Research in Animal Health, Agro-chemistry와 공동으로 벨기에로부터 제공받은 수백 개의 샘플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방사 닭에서 나온 달걀은 유럽 기준치보다 3~5배나 높은 다이옥신 함량을 보였고, 납 함량은 물론 몇 년 전 사용이 금지된 DDT 살충제 함량도 높게 검출됐다.

영국

가금산물로 움직이는 차 발명

농부이자 발명가인 Harold Bate는 가금산물을 이용해 차를 움직이는데 성공했다.

Mr Bate는 메탄가스를 일으키는 닭과 돼지 분뇨를 분석해서 5톤 트럭을 움직였다. 그는 단지 0.03파운드의 비용으로 가솔린 1갤런과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메탄가스를 이용하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 연료보다 깨끗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와 석유회사들도 그들이 하지 못한 것을 62세의 노 발명가가 해낸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Mr Bate는 기존의 평범한 차를 약간의 개조작업으로 거의 공해가 없는 차를 만든 것이다.

EU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EU는 향후 10년간 27개국으로부터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을 승인했다.

스위스의 화학비료 회사인 Syngenta에 의해 판매되며, 사람이 먹는 음식과 동물 사료용으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내에서의 생산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수입만 가능하다.

GA21형 옥수수는 특수한 이익을 위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곡물 거래소를 뒀다.

EU의 GA21형 수입 허용에 따라 수입 곡물은 주로 아르헨티나의 GM사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GA21형 옥수수는 제초제로부터 저항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인도

옥수수 수출 재개

가금산업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출금지 시켰던 옥수수를 재수출한다고 밝혔다.

옥수수 가격 폭등을 염려한 가금산업 관계자는 무역회사의 수출 전면철수를 요구했다. 인도의 옥수수 작물의 50%는 가금사료로 이용됨에 따라 인도 양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옥수수 수출액은 한해 약 50만 톤이다.

(출처: www.the-poultrysite.com/world-poultry) 양계